

J.J.

MONTHLY
LIFE DESIGN
MAGAZINE
MEMBERSHIP
MAGAZINE OF
GRAND HYATT SEOUL

SEPTEMBER
2014

+

NO.
110



당신을 사용합니다
THE MOMENTS —

— A RIDING WE WILL GO

HEY! —
TELL ME YOUR DREAMS

— 100/DESK PROJECT 제 짝입니다

연금술의 맛
HOUSE OF THE ALCHEMY



MAGAZINE

INTERVIEW

EDITOR CHANG NAMMI PHOTOGRAPHER YUL D KIM COOPERATION PKM GALLERY

HEY! WONWOO LEE

어떤 아이러니의 틈틈이





이원우는 다양한 매체로 발현되는 작업을 지속 중이다. 이름도 흥미로운 ‘... 좋겠다 프로젝트’ 멤버로 시작한 퍼포먼스부터 조각, 설치, 페인팅, 사진, 영상 등을 도구로 쓰는 그는, “익숙한 일상을 새롭게 환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 근면하게 제 나날을 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에 들리고 눈에 띄는 ‘실마리’가 작업으로 이어진다는 작가는, 딱딱딱 제 길을 다져가는 중이다.



이원우

홍익대학교와 런던 왕립학교에서 조각 전공으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작가는 ‘... 좋겠다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팀 멤버로도 활동하며, 퍼포먼스, 조각, 설치, 페인팅,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오로지 고유의 형태나 의미의 왜곡을 통해 얘기하지 않은 아이러니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한다. 현재 전시기획자와 비평가, 컬렉터 등 미술관계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의 작업은 한가람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문래예술공장 등 국내 주요 미술관에서 선보였으며, 2012년 대안공간 루프에서 개인전, 2013년 PKM 갤러리에서 두 번째 개인전 〈Welcome, Take Care〉를 가진 바 있다. 한가람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문래예술공장, 런던 펄프 하우스 갤러리, 베이징 송주왕 아트센터, 썬스페이스, 상상마당, 서울시립미술관, KIAF, Art Basel, Art Basel in Hong Kong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성수동에서 느낀 첫인상은, 추웠어요. 겨울이라 그랬겠지만 흥미로운 점은, 철공장만 있던 문래동에 비해 시장도 있고 학교도 있는 이곳에는 좀 더 사람들의 삶이 흘러요. 북닥북닥한 기운이요. 이전까지는 작업실에서 지나가는 사람 말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바깥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처음에는 아주 싫었는데, 갈수록 재미있는 얘기처럼 들리면 저도 모르게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말하는 작가는 최근 고기 굽는 석쇠를 만지고 있다. 올해 연말 즈음으로 예정되어 있는 런던 전시에 내놓을 신작의 밑천이 되는 재료다. 이 재료는 최근 새로 마련한 작업실 주변의 ‘일상’에서 찾은 것이 분명하다.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삶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주변환경(Location)이 작업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 작가의 근황은 성수동에 머문다. 영국 런던 왕립예술학교 유학 이전, ... 좋겠다 프로젝트 팀으로 활동한 시기의 작업공간은 재학 중인 홍익대학교와 가까운 성수동에 있었다. 한국에 다시 들어와 대안공간 루프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가진 2012년에는 문래동에 근거했고, 이후 작년 한 해는 난지창작촌에서 지냈다. 알게 모르게 젊은 예술가들이 찾아오는 동네인 성수동은, 흥대 앞과 문래동이 그랬듯 ‘뜨거운 동네’가 되는 징조가 여러 구석에서 포착된다. 이곳에서 이원우는 이전보다 사이즈가 커진 작업을 소화할 만한 ‘1층 공간’을 찾았다.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다양한 업종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동네 분위기는 의외의 고요함이 감돌았는데, 그가 세 들기 이전에는 정육점이었던 작업실에서는 “사람들 말 소리가 꽤 잘 날아든다”고.

삶의 다양한 경험에서 포착한 요소를 짓궂게 또는 유쾌하게 이용해 익숙하던 일상의 현상을 새롭게 환기하는 이원우. 공간 내부에 연기 발생 장치를 설치해 놓고 농도가 짙어질수록 흐려지는 ‘나의 형태’와 무의미해지는 ‘세상과의 경계’를 가능해보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I wish I could be disappear from this world or the other way around)〉와 같이 어떤 ‘사건의 현장’으로 관객을 초대하는 작가는 그 속에서 “오늘의 내가 여기 있다”고 인사한다. 온전한 ‘제 삶’을 살았던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호숫가, 숲 사이에 ‘HEY’ 사인물을 세워둔 〈HEY〉와 같은 외침이다. 아카데미화공의 유럽 풍경화의 전형성을 짓궂게 비튼 작업인 〈지루한

- 1
<In terms of Romance>, 2014. Steel, Stainless steel, Flag, Flag pole 1800mm, Flag 413x700mm.
- 2
<I wish I could be disappear from this world or the other way around>, 2013. greenhouse unit, fog machine, stool, lamp, timber. 195x190x250cm. Courtesy of Artsonje Center and Artist
- 3
<A riding we will go>, 2014. Paint on stainless steel, and ready-made bicycle. 188 x188x18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PKM Gallery.
- 4
<Gates of the world>, 2014. Powder coated on stainless steel, 120x70x1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PKM Gallery.



날 다음 날(The day after boredom was born))과 <조금 덜 지루한 날의 다음 날(The day after less boredom was born))의 제목이 찌르는 의표는 이렇다. 일상의 관성에 젖은 사람들에게 “오늘 못 볼지도 모르니 미리 인사하죠. 굿애프터는 굿이브닝 굿나이트” 하고 떠난 트루먼처럼, 제 스스로 깨어나보려고 애쓰는 속에서 전시장에 제발로 찾아와 '실재' 하는 경험' 속에 저를 던지는 관람객을 '환영'하고 '배웅'하는 대화인 셈이다.

8월 31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서광다원 일대에서 진행되는 현대미술프로젝트 <에이피 맵(Apmap)>. 푸른 녹차밭 입구에 이원우는 18m에 이르는 깃대에 <낭만에 관하여(In Terms Of Romance)>라고 쓴 대형 깃발을 메달아 세워놓았다. 필릭이는 대형 깃발의 '로맨스는 사람들 저마다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있는 '자기 낭만'을 떠오르게 혼다. 관광객이 된 제주와 다원을 그저 한번쯤 스치고 지나가는 여행객에게 신비로운 장소 자체의 아름다움을 환기해보려 한 작업에서 혹 '숨은 그림'을 발견한 누군가가 있는지 작가는 궁금하다고 했다.

“실제 하늘을 촬영한 사진을 프린트한 깃발을 잘 보면 낮달이 떠 있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저게 하늘인지 잘 모르겠지만, 7월 4일 전시 오픈이 있던 날이 아주 흐렸어도 저는 조금 기쁘기도 했어요. 비 오기 직전의 어두운 하늘에 '작은 하늘 하나'를 걸어놓았으니까요. 만약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통하는 부분이 무언가든 있겠지 하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자신에 대해 규정하려고 하면 비껴나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고 얘기한 이원우. 이제까지 그의 작업을 꾀는 '단어(word)'로 자주 쓰여온 유머와 유희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다만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고 짚으며, 제 작업은 “관객의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비로소 작품이 된다”고 했다. 제 의도가 관객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활발한 화학작용의 촉매제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도구 하나가 유머라는 것이다. 또한 대체로 유머란 탈출구 없이 꼭 막혀 보이는 현실이 전복되고 파괴되고 실패할 때 더욱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명랑한 에너지로 때로는 웃어도 보라는 순간이 되어주는 '즐거운 텍스트'다.

WONWOO LEE CONTINUES TO PURSUE A LINE OF WORK THAT MANIFESTS ITSELF IN A VARIETY OF MEDIA CHANNELS. USING A NUMBER OF MEDIUMS INCLUDING SCULPTURE, INSTALLATIONS, PAINTING, PHOTOGRAPHY, IMAGES, AND PERFORMANCES, HE HAS SINCE SOUGHT WAYS TO DELIVER THE MOST EFFECTIVE CHEMICAL REACTION TO HIS AUDIENCE, IN TELLING INSPIRING AND STIMULATING STORIES.

The artist is working with gridiron nowadays--a material for his new works that will be presented at an exhibition in London towards the end of this year. This material can be found in his new neighborhood. He said "I can't deny the important influence that a location has on my work." His studio was located at Sangsu-dong when he was active as a member of the Jocketta Project prior to studying at the Royal College of Art in London, UK. He moved his base to Mulla-

dong in 2012 when he held his first solo show and then to the Nanji Creative Center last year. Today, young artists are gathering to build their nests at Seongsu-dong, either knowingly or unknowingly. Lee first looked for a space on the ground level that could accommodate larger works than before. Although his neighborhood is made up of various types of businesses, the area is unexpectedly quiet. The voices of the people are still easily heard in his studio which used to be a butcher shop.

Lee reminds us of the realities in our daily lives by pleasantly or mischievously using elements that he has captured in his different artistic encounters. An example can be found in his installation work, "I wish I could disappear from this world or the other way around," in which he installs a fog machine to blur the boundary between "my figure" and the world. His oil and acrylic on canvas titled "The day after boredom was born" and another acrylic on canvas titled "The day after less boredom was born" take us by surprise. To people who are accustomed to the inertia of their daily lives, "I am saying hello in advance as I won't be able to see them today. It is like Truman who once said "Good morning, and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in the movie, The Truman Show, starring Jim Carrey. It seems as if he is both welcoming his audiences and seeing them off at the same time.

At the APMAP (Amorepacific Museum of Art Project) that will be held in the natural settings of Seogwang Tea Garden in Seogwipo, Jeju, through August 31, Lee has erected an 18-meter flag on which the phrase "IN TERMS OF ROMANCE" is written. The unfinished sentence intends to encourage visitors to construct their own illusions and romances in the non-everyday environment of a tourism destination. He believes that his work "becomes a work of art only when it causes a reaction in the hearts of his audiences, whether it be laughter or cheerful energy. His work shines all the more when audiences echo back his sentiments, in any form.

